

벽시계

- 나가사키 -



폭발지점에서 약 800m 떨어진 산노 신사 부근의 민가에서 피폭한 것. 폭풍의 영향으로 시계침은 폭발시각인 11시 2분에 멈춰 있다.

폭발지점에서의 거리 / 800m

구보 주하치 씨 기증 /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제공